제7장

한국 실학 연구

허종은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5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15년도 한 해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 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한국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한 논문 몇 편에 대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논문 색인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2015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45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5편으로 전체 약 50편이 검색되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성호학파, 북학파, 실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정약용 · 최한기,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서학 및 과학,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한국실학 관련 논문들을 학파별로 분류하면, 성호학파 2편, 북학파 5편, 다산 관련 26편, 혜강 관련 0편, 심대윤을 비롯한 기타 인물과 주제에 대한 것이 17편이다. 다산 관련 논문이 가장 많고, 북학파와 성호학파에 대한 연구는 줄어들었고, 혜강에 관한 논문은 없으며, 심대윤 등의 기타 인물과 언어 · 문자를 비롯한 특별한 주제에 대한 것이 많은 편이다.

1) 성호학파(星湖學派)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황병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주역 상수학설(象數學說) 연구 이익: 신후담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중심으로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2	서근식	성호학파(星湖學派)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1) -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해석(解釋) 방법(方法) -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성호나 성호학파를 다룬 논문이 2편이며, 모두 역학(易學)을 연구한 글이다. 하나는 이익 · 신후담, 그리고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연구하여 『주역(周易)』 중에서 상수학(象數學)과 관련한 논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익(李瀷)의 『주역』 해석 방법을 다룬 논문으로,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을 탐구하는 관점에서 시도된 것이다.

2) 북학파(北學派)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정근	홍대용(洪大容)의 범애(汎愛)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2	이학당	李德懋의 유가(儒家) 동몽교육(童蒙教育) 사상(思想)에 관한 연구(研究)	『한국실학연구』29	한국실학학회
3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연암그룹 지식인들의 천(天) 인식	『대동문화연구』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이춘희	湛軒 洪大容의 『醫山問答』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5	이지선	은유교육연구–박지원의 『호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북학파를 다룬 논문은 5편이며, 이 중에서 홍대용 2편, 박지원 1편, 이덕무 1편, 연암그룹에 관한 것이 1편이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홍대용과 박지원에 관한 것이 각각 1편이다. 대체로 북학파에 관한 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3) 정약용(丁若鏞)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동우	다산(茶山) 『상의절요(喪儀節要)』의(義) 연원(淵源)과 재성문화(再成文化)의 원칙(原則)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2	방인	우번(虞翻)의 괘변설(卦變說)과 정약용(丁若鏞)의 추이설(推移說)의 비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3	이숙희	욕망과 염치로서의 정약용의 심성: 성기호설의"낙선치악樂善恥惡"에 대한 연구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4	주월금	《孟子要義》與《孟子字義疏證》 : 丁茶山與戴震的人性論比較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5	조성을	『사암선생연보(俟菴先生年譜)』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6	노지현	정약용(1762~1836)의 고문상서 비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7	방인	다산역의 천명관: 청명(請命), 품명(稟命), 순명(順命)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8	정길웅	다산 『역』학과 예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9	임충군	다산의 한대(漢代) 상수역학(象數易學)에 대한 검토와 평가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0	임재규	괘변설의 변천과정에서 본 다산의 추이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1	이창일	다산 효변설의 역학사적 검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2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내지덕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3	이난숙	다산의 정현(鄭玄)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4	장수, 방호범	창조, 특색, 의의: 다산학에 대한 재조명과 추진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5	이행훈	다산 정약용의 심성론: 인심도심의 재해석과 성기호설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16	이영경	정약용(丁若鏞)의 정의론(正義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17	정소이	다산 정약용의 윤리론에서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18	김문식	정조대 정약용의 경학 연구 방법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9	백민정	정약용의 경학 저술에 나타난 '덕(德)' 개념의 철학적 의미와 쟁점 : 현대 서양 덕 윤리학[virtue ethics]의 논쟁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0	노경희	일제강점기 일본인 제작 다산 저술의 필사본과 신식활자본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1	김보름	『여유당집(與猶堂集)』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로 : "전서 초본" 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22	정대영	다산(茶山)의 '신론(神論)'과 '심학(心學)'의 관계성 연구	『철학연구』 134	대한철학회
23	정일균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다산의 사서학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4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5	이상아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6	이진정	다산 정약용의 『아언각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약용을 다룬 연구가 26편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다산학』이라는 학술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에도 기인한다. 그리고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도 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3편으로 다른 사상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 중에서 경학 분야 14편, 철학 7편, 기타 분야 논문이 5편이다. 철학과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다산의 사상을 다룬 논문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4)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상혁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훈민정음의 유통과 담론의 양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2	신용권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 후기의 한어(漢語)학습서와 훈민정음의 사용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3	정승혜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조일(朝日) 양국(兩國)의 언어 학습과 문자에 대한 인식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4	양원석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소학(小學)과 『설문해자(說文解字)』 연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한자학(漢字學)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5	정순우	정조(正祖)의 통치이념에 깃든 순자적(荀子的) 사유(思惟)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6	박권수	여암 신경준의 과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7	임형택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8	송혁기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沈大允) 산문(散文)의 의론성(議論性) 일고(一考)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9	손혜리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沈大允)의 남정록(南征錄)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0	김하라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沈大允)의 자기서사–노동하는 양반의 정체성과 자기 해명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1	장병한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예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예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2	함영대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백운 심대윤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전해석의 일 국면 –백운집과 논어 해석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3	김양진, 신상현	조선 지식인들의 청대(淸代) 만주어(滿洲語) 수용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4	김준태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의 국정운영론(國政運營論) 연구(硏究)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15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	한국사상사학회
16	정호훈	20세기 후반 미국에서의 실학 연구 : 제임스 팔레의 「반계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8	한국사연구회
17	이형성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저술 재검토와 후학의 관련 자료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79	한국사사문화학회

기타로 분류한 인물과 주제에 대한 논문이 17편이다. 이 중에서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에 관한 특집 논문이 6편이며, 조선후기 언어 · 문자 연구와 지식 교류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이 『한국실학연구』에 특집으로 실린 점이 주목된다.

2. 주제별 분류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17편, 철학 분야가 13편, 정치와 경제 분야가 2편, 서학과 과학사상 분야가 2편, 기타 분야로 심대윤을 다룬 6편의 논문과 조선후기 언어 · 문자 특집을 다룬 4편 등을 합쳐 16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에도 경학과 철학 분야 논문이 여전히 많은 편으로, 이는 한국실학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인 측면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 경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황병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주역 상수학설(象數學說) 연구 이익: 신후담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중심으로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2	서근식	성호학파(星湖學派)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1)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해석(解釋) 방법(方法)–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3	장동우	다산(茶山) 『상의절요(喪儀節要)』의(義) 연원(淵源)과 재성문화(再成文化)의 원칙(原則)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4	방인	우번(虞翻)의 괘변설(卦變說)과 정약용(丁若鏞)의 추이설(推移說)의 비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5	노지현	정약용(1762~1836)의 고문상서 비판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6	정길웅	다산 『역』학과 예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7	임충군	다산의 한대(漢代) 상수역학(象數易學)에 대한 검토와 평가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8	임재규	괘변설의 변천과정에서 본 다산의 추이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9	이창일	다산 효변설의 역학사적 검토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0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내지덕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1	이난숙	다산의 정현(鄭玄) 역학 비판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12	김문식	정조대 정약용의 경학 연구 방법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3	정일균	동아시아 관점에서 재조명한 다산의 사서학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14	장병한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예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예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5	함영대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백운 심대윤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전해석의 일국면 –백운집과 논어 해석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6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7	이상아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경학을 다룬 논문은 총 17편인데, 그 중에서 역학(易學)을 다룬 논문이 1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성호학파와 정약용의 역학의 관련성을 연구한 2편의 논문은 학파의 연속성 문제를 역학을 통하여 논의한 점이 주목된다. 나머지 논문은 심대윤의 예학(禮學)과 『논어(論語)』에 관한 2편을 제외하면 모두 정약용의 경학에 관한 논문이다. 특히 『제례고정(祭禮考定)』이 번역된 점은 그 동안 부족했던 정약용의 예학(禮學)에 대한 연구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의 경학에 관한 논문이 이렇게 지속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된다는 것은 정약용이 조선시대 실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학문적인 성과가 총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 철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정근	홍대용(洪大容)의 범애(汎愛)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82	동양철학연구회
2	이학당	李德懋의 유가(儒家) 동몽교육(童蒙教育) 사상(思想)에 관한 연구(研究)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3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연암그룹 지식인들의 천(天) 인식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이숙희	욕망과 염치로서의 정약용의 심성: 성기호설의"낙선치악樂善恥惡"에 대한 연구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5	주월금	《孟子要義》與《孟子字義疏證》 : 丁茶山與戴震的人性論比較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6	방인	다산역의 천명관: 청명(請命), 품명(稟命), 순명(順命)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7	이행훈	다산 정약용의 심성론: 인심도심의 재해석과 성기호설	『동양철학연구』 84	동양철학연구회
8	이영경	정약용(丁若鏞)의 정의론(正義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9	정소이	다산 정약용의 윤리론에서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10	백민정	정약용의 경학 저술에 나타난 '덕(德)' 개념의 철학적 의미와 쟁점 : 현대 서양 덕 윤리학[virtue ethics]의 논쟁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1	정대영	다산(茶山)의 '신론(神論)'과 '심학(心學)'의 관계성 연구	『철학연구』 134	대한철학회
12	정순우	정조(正祖)의 통치이념에 깃든 순자적(荀子的) 사유(思惟)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13	이춘희	湛軒 洪大容의 『醫山問答』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철학을 다룬 논문은 총 13편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정약용의 심성론에 관한 논문이 7편으로 압도적이다. 이 중에서 정약용의 성기호설, 그것과 인심도심설을 비교한 논문이 2편, 윤리 문제를 중점으로 다룬 논문이 3편, 청나라 학자인 대진(戴震)과 비교한 논문과 신론(神論)과 심론(心論)의 관계를 다

룬 논문, 천명관(天命觀)을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이다. 그리고 북학파의 사상을 다룬 논문이 3편이고, 순자(荀子)를 정조의 통치이념과 관련하여 연구한 특이한 논문이 1편이다.

3) 정치 · 경제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형택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2	김준태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의 국정운영론(國政運營論) 연구(硏究)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정치 · 경제 분야에 관한 연구는 2편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기대해야 할 것이다.

4) 서학 및 과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권수	여암 신경준의 과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2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	한국사상사학회

조선후기 실학파의 성립에는 중국에서 수용된 서학 및 중세유럽과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에도 2편이 발표되었다. 개별 학자의 과학사상이 1편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종교와 과학을 분리하려는 서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논문이 1편이다.

5)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성을	『사암선생연보(俟菴先生年譜)』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 27	다산학술문화재단
2	장수, 방호범	창조, 특색, 의의: 다산학에 대한 재조명과 추진	『다산학』 26	다산학술문화재단
3	이상혁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훈민정음의 유통과 담론의 양상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4	신용권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 후기의 한어(漢語)학습서와 훈민정음의 사용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5	정승혜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 조선후기 조일(朝日) 양국(兩國)의 언어 학습과 문자에 대한 인식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6	양원석	특집: 조선후기 언어(言語).문자(文字) 연구와 지식 교류: 소학(小學)과 『설문해자(說文解字)』 연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한자학(漢字學)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학회
7	송혁기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沈大允) 산문(散文)의 의론성(議論性) 일고(一考)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8	손혜리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沈大允)의 남정록(南征錄)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9	김하라	특집 1: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심대윤(沈大允)의 자기서사-노동하는 양반의 정체성과 자기 해명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0	김양진, 신상현	조선 지식인들의 청대(淸代) 만주어(滿洲語) 수용 연구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11	정호훈	20세기 후반 미국에서의 실학 연구: 제임스 팔레의 「반계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8	한국사연구회
12	이형성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저술 재검토와 후학의 관련 자료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79	한국사사문화학회
13	노경희	일제강점기 일본인 제작 다산 저술의 필사본과 신식활자본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14	김보름	『여유당집(與猶堂集)』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로: "전서 초본" 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24	진단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5	이지선	은유교육연구–박지원의 『호질』 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6	이진정	다산 정약용의 『아언각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기타로 분류한 논문이 16편으로 이번 논문들은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언어 · 문자 연구와 지식 교류 및 청대 만주어 수용 문제를 다룬 주제의 논문이 5편이다. 둘째,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에 관한 논문이 3편이다. 셋째, 다산 문집을 검토한 논문이 3편이며, 마지막으로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저술을 검토한 논문이 2편이 연구되었다. 이는 한국실학에 관한 연구 범위를 깊이 있고, 폭넓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점이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 논문 중에서 『한국실학연구』에는 2015년에 실학에 관한 세 가지 특집을 기획하였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29권에서는 '조선후기 언어 · 문자 연구와 지식 교류'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30권에서는 '조선시대 『가례』 연구와 실학'이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6편 등의 흥미로운 논문을 게재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한국실학연구』 30권에 실린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주목해보자. 심대윤(沈大允, 1806－1872)은

조선말기인 19세기에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학문에 주력한 인물이다. 「심대윤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에서 임형택은 심대윤이 수립한 복리(福利)사상의 핵심은 이(利)와 욕(欲)에 있었으며, 성리학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고 심대윤은 이익추구에 빠진 인간 사회를 바로잡고 균형을 취하기 위해 공(公)개념을 도입해서 공공성을 중요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복리사상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공리주의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송혁기는 「심대윤 산문의 의론성 일고」에서 심대윤이 글을 쓰는 이유를 복리(福利)사상을 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전제하였다. 심대윤의 글쓰기 특징은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글로 남겨야 언젠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과 사명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어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손혜리는 「심대윤의 남정록 연구」에서 『남정록(南征錄)』은 1755년 을해옥사에 연좌되어 유배지에서 죽은 심대윤의 증조모와 조부, 대고모 세 분의 유골을 선영으로 반장(返葬)하기 위해 1841년 10월 4일부터 다음해 4월 1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에 걸친 여정을 기록한 저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문헌은 심대윤 가문의 처절한 비극이 오롯이 수록되어 있는 고뇌의 독백이라고 여겼다. 심대윤은 이 글에서 반장을 통해 가족사의 비극을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고, 아울러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가문 재건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소론 명문가의 후예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심어주고자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김하라는 「심대윤의 자기서사 - 노동하는 양반의 정체성과 자기

해명」이라는 글에서 『동구자자해(東邱子自解)』에서는 폐족의 후예로 극빈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사(士)의 본분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있던 30세 무렵 심대윤의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포착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흔 살을 앞둔 1843년 제자 유영건(柳榮建)에게 쓴 편지인 『여유군하원서(與柳君夏元書)』에서 양반사대부로서의 체면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상업에 뛰어들었던 자신의 28세 때 이래의 경험에 대해 비로소 진솔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양반의 육체노동에 대한 진일보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장병한은 「심대윤의 『예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 19세기 양명학적 예학론(禮學論)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 - 」에서 심대윤은 당시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숭앙(崇仰)되어 온 『예기(禮記)』와 전통적인 이전의 예학 체계에 대한 변통을 시도하였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정주학적 예학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통해 새로운 예학을 제안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백운 심대윤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전해석의 일 국면 - 백운집과 논어 해석의 자료를 중심으로 - 」에서 함영대는 심대윤의 시를 통해 볼 때, 가정적 불운과 사회적으로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도를 자임하면서 유학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가고자 했다고 풀이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인정(人情)과 사리(事理)에 기초하여 많은 경전들을 해석하려고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연구는 정약용의 역학에 미친 성호학파의 영향에 대한 2편의 논문이다. 「성호학파(星湖學派)에서 다산(茶山) 정약용

(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1) –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해석(解釋) 방법(方法) – 」에서 서근식은 이익(李瀷)의 『역경질서(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周易)』 해석방법이 호체(互體)법이었음을 밝히고, 정약용의 역학이 이러한 성호학파의 영향을 받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주역 상수학설(象數學說) 연구 이익: 신후담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중심으로」에서 황병기는 정약용의 독특한 역리사법(易理四法: 推移 物象 互體 爻變)은 이익과 이를 계승한 신후담 등 성호학파에서 형성된 효변설의 주역 해석방법론을 통하여 성립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 두 논문은 성호학파와 정약용의 학문적인 계승을 주역 해석방법론을 통하여 훌륭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학 내부의 학파적 계승 관계를 잘 밝힌 연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약용의 역학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8편의 논문은 그의 학술사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약용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는 그의 윤리론의 최종 결정권이 도덕감정과 이성 중에서 도덕감정이 우선임을 밝힌 것과 서양의 덕 윤리학과의 비교를 통한 논문도 돋보인다.

이 외에도 제임스 팔레의 『반계수록』 연구를 분석하고 평가한 글은 유형원과 당시 조선사회를 조명하는 해외 학술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형원의 저술과 사후, 그의 문인과 후학들이 지은 전(傳)과 행장(行狀) 등을 비교 검토하여 그의 사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연구도 눈에 띈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에서 조현범은 기존의 논의들이 대개 조선의 유학자들이 서학 서

적 가운데에서 과학에 관한 내용들은 수용하되, 종교적인 가르침을 담은 내용은 배격하였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인식을 잘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명물도수학과 위기지학의 용어법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서학에 대한 구분법을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4. 평가와 전망

2015년도에도 실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경학과 철학 분야의 연구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실학에 관한 사상적인 성격을 밝히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앞으로 실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검토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한국실학을 조선후기 역사에 학문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한국실학이 조선후기 전체 역사 지평에서 그 의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전히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